2024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

탈핵주일 자료집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 속으로 신이라도 된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겔 28:2)

*** 2024년 탈핵주일은 3월 10일입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목 차

3 탈핵주일 제안문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_ 장윤재 박사(이화여대 교수)

5 예배자료 1
2024 탈핵예배 중보기도, 핵 없는 생명평화의 세상을 위한 기도

8 예배자료 2
설교문 _ 정원진 목사(서울제일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공동대표)

13 예배자료 3
현안 이야기

16 예배자료 4
<성명서>핵 없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18 예배자료 5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신앙선언

후쿠시마 핵사고 13년 탈핵주일 제안문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후쿠시마 핵폭발’ 13주년이 다가옵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으로 지진해일이 덮쳐 후쿠시마의 핵발전소들이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폭발했습니다. 당시 녹아내리는 원자로 안을 들여다보기 위해 투입된 로봇은 두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멈춰버렸습니다. 무서운 방사능 때문입니다. 아직도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에도 진도 7의 대지진이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를 덮쳤습니다. 사망자는 230여 명, 피난민은 1만7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도 핵발전소 두 기가 있는데 강진 직후 외부에서 들어오던 전원 5개 가운데 2개가 끊어졌습니다.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 원전이 가동 중이지 않아 대폭발은 없었으나, 방사능에 오염된 물과 기름이 또다시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지진 대국’ 일본은 핵발전을 멈춰야 삽니다.

핵발전이 이렇게 위험한 데도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핵발전소를 14개나 더 지을 예정입니다. 땅이 좁아 이미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1위인데, 이대로 가면 곧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숫자마저 세계 1위가 됩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세계 1위’입니다.

핵은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핵은 절대로 지구 위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하늘의 불’이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초롱초롱 빛납니다.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핵의 불이 타고 있는 곳에는 어떤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핵은 ‘하늘의 불’입니다. 그것은 연약한 생명들이 살아가는 땅 위에서 태워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불입니다.

핵에너지는 청정에너지가 아닙니다. 핵발전의 전 과정, 특히 우라늄의 채굴과 가공 그리고 농축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우리 세대가 잠깐 편하자고 1만 년 이상 방사선을 내뿜는 핵쓰레기를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무책임한 비윤리적 행동이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괴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단군 이래 이 민족의 역사가 고작 5천 년입니다. 1만 년이면 그 두 배입니다.

핵은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싸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핵과 기독교 신앙이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원자핵을 쪼갤 수 있고, 또 원자핵을 쪼개면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얻은 엄청난 에너지로 맨 처음 한 일은 폭탄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는 원자번호 1번인 수소입니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가장 무서운 원소는 원자번호 92번인 우라늄입니다. 인간은 92번 원소를 가지고 플루토늄이라는 핵폭탄 원료를 추출했습니다. 플루토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질이 아닙니다. 그 물질은 각설탕 크기 다섯 조각만 가지고도 일본 인구 2억을 즉사시킬 수 있는 맹독성 물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인간은 폭탄을 만들어 세상을 지배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핵 위기는 환경 위기가 아닙니다. 핵 위기의 본질은 인간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세계에서 피조물의 하나인 인간이 핵을 가지고 인류의 생사여탈을 좌지우지하며 마치 자신이 신이라도 된 듯이 지구 위

에 군림하려 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벌이는 탈핵운동은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닙니다. 영적 각성운동이고 신앙의 결단입니다. 핵이라는 죽음의 에너지 위에 세워진 인간의 문명을 깊이 돌아보고 영적으로 회개하는 신앙운동입니다.

과학자들은 지난 1942년 세계 최초의 인공 원자로를 미국 시카고대학 운동장 한구석에 지으면서 스스로 '조물주'의 영역에 들어서게 됐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에스겔 28:2)

성서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래전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죄란 우리 인간이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든 유형의 교만입니다. 일본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핵발전소를 관리할 수 있다는 '기술적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절대로 10미터 이상의 지진해일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면서 태평양 연안에 핵발전소들을 마구 지었습니다. 하지만 13년 전 17미터의 쓰나미가 후쿠시마를 덮쳤습니다. 자연을 완벽하게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바로 오만이었습니다.

"새벽 세, 네 시가 될 때까지 미친 듯 깜빡이는 술집들의 네온사인, 밤을 모르는 환한 밤거리, 꺼질 줄 모르는 심야학원의 불빛, 야간 자율학습하는 방방곡곡 온 학교에 밤늦은 시간까지 쉭쉭 돌아가는 냉방기와 난방기들..... 그저 밤에는 불 끄고 잠자리에 들면 될 것을." 한 시골학교 선생님이 우리가 원자력발전을 유지하면서 누리는 잘못된 풍요의 세상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핵무기를 지지하거나 핵발전을 옹호할 수는 없습니다. 원자력은 처음부터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원자력발전에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것을 고집하는 진짜 이유는 그것이 핵무기의 원료를 생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핵은 그것이 무기든 발전이든 평화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과도 양립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40년간의 광야생활을 마친 후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이제] 생명을 택하여라."(신명기 30:19)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려거든 이제 죽음의 핵문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을 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김없이 봄이 찾아옵니다. 얼었던 땅을 뚫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좋은 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좋았다고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그 생명을 지키고 돌보라 명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한없이 오만해진 우리 인간들을 본래 에덴동산의 겸손한 청지기로 부르는 탈핵운동에 다함께 새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장윤재 박사(이화여대 교수)

(위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도 제공됩니다.)

영상링크 : https://youtu.be/JEsZxKWzN4I?si=F3UX9CyVZXk7XgJQ

예배 자료 1

기도문

2024년 탈핵예배 중보기도

우주의 주재이시며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지으신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신비롭습니다. 모든 인류와 생명체의 편한 안식처가 되어주며, 풍성한 결실을 통해 모든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자자손손 대를 이어오며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세상이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멍들어가고 서서히 파멸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온갖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죄와 죽임이 난무하는 세상이 열리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고통의 굴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도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 제2의 선악과, 핵이 가져주는 달콤한 열매를 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탐욕과 자만심에,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또 다시 넘고 말았습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핵발전소를 지으며 인류의 번영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합니다. 인간의 지혜로, 기술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핵은 인류에게 선물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것을 전 세계가 생생하게 지켜봤습니다. 쓰나미라는 자연재해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최고의 기술자라는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아직까지도 핵발전소 안에 있었던 핵물질도 처리하지 못하고 핵오염수만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정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핵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양 생명체들의 삶이 위협을 당하고, 독성물질에 체내에 서서히 쌓여가며 인류와 함께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핵발전소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에서 엄청난 핵발전소 사고가 있었고, 57년 영국 윈드스케일 핵발전소 사고, 79년 미국 드리마일 아일랜드 핵발전소 사고 등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돈에 눈이 먼 각국 정부와 핵 마피아들은 여전히 안전하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핵이 인류에게 결코 안전하지도, 평화롭게 하지도 못하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는 핵으로 말미암아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은 완전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땅에 핵무기와 핵발전소가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핵 없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핵 없는 세상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거짓의 역사를 물리치고 인류가 하나 되게 하소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핵 없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인류가 핵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꿈꿉니다.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자태를 우아하게 뽐낼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대합니다. 그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김승민 목사(평화나무교회, 핵그련 교회위원장)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핵 없는 생명평화의 세상을 위한 기도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이는 선악과를 통하여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꿈꾸어서도 안 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핵발전소는 편리해보이고, 깨끗해보이고, 풍요로워보였습니다.
하지만 핵발전소는 한 순간에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파멸로 가져가고
모든 생명을 송두리째 죽음으로 이끌고 있음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 주님, 핵발전소는 이 시대의 선악과였습니다.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체 했고, 외면했습니다.
체르노빌은 먼 나라 일이라고 구경만 했습니다.
후쿠시마는 특별한 일이라고 애써 태연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의 곁에 수많은 핵발전소가 있었습니다.
그 숫자의 크기를 늘려가면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소서.
우리의 어리석고 무지함과 용기 없음을,
이제 조금은 불편해도, 조금은 어려워도, 조금은 가난해도,
핵발전소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내려놓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이루어가며 살겠습니다.
이 땅 곳곳에서 기도하며 뜻을 모으는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상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자료 2

설교문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2“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 속으로 신이라도 된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겔 28:2)

19“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신 30:19)

탈핵주일 및 ‘탈핵(脫核)’의 범위

오늘은 ‘탈핵주일’입니다. 탈핵주일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탈핵(脫核)’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선교 과제임을 선언하고, 사고일인 3월 11일 직전 주일을 탈핵주일로 지킬 것을 결의하면서 2013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탈핵(脫核)’의 사전적 의미는 “핵무기, 핵발전소 등 원자력과 관계된 모든 일에서 벗어남”을 뜻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핵무기는 몰라도, 핵발전소까지 벗어나는 것이 옳은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핵의 ‘군사적 이용’(=핵무기)은 반대하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핵발전소)까지는 반대하지 않는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를 갖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핵무기는 반생명적이요 반윤리적이지만, 핵발전소는 그렇지 않다. ② 핵발전은 탄소 배출 없는 청정에너지이기에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다. ③ 핵발전소는 전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값싼 에너지공급원이다.

특별히 현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견해를 가졌고,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와 반대되는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 찬반을 정치적 문제라고 생각하고, ‘교회가 왜 정치문제에 관여하느냐’며 걱정하는 교우도 계십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찬반은 정치문제가 아닙니다. ‘생명문제’요, ‘평화문제’요, ‘윤리문제’요, ‘안전문제’요, ‘과학문제’요, ‘경제문제’요, ‘기후위기문제’요, ‘민주주의문제’요, 근본적으로는 ‘신앙문제’입니다. 그래서 NCCK가 ‘탈핵(脫核)’을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선교 과제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는 둘 다 반평화적이고 반생명적이다

핵무기와 핵발전소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그 작동 원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에 물리학자들은 핵분열의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우라늄을 핵분열시키면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라늄을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분열시키면 폭탄이 되고, 천천히 조금씩 분열시키면 핵발전소가 됩니

다. 그러니까 둘 다 핵분열의 원리를 이용한 인간의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둘 중에 핵폭탄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핵발전소의 핵심 장치인 원자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핵폭탄의 원료 중 하나인 플루토늄을 생산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핵발전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력생산이 아니었고, 핵폭탄 원료생산이었습니다. 이것이 지진 대국 일본이 수많은 핵발전소를 짓는 진짜 이유입니다. 이렇듯 핵발전은 핵무기에 대한 야망 위에 서 있고, 핵의 '평화적 이용'(핵발전)과 '군사적 이용'(핵무기)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핵은 그것이 '무기'이든 '발전'이든 결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핵발전에서 멈추고 핵무기로 나아가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는 반생명적이지만, 핵발전은 안 그렇다고 주장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핵폭탄은 단시간에 많은 인명을 살상하지만, 핵발전소 사고는 '체르노빌'처럼 서서히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핵분열은 열에너지만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방사능도 발생시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도 인정했듯이,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방사능은 없습니다. 안전한 기준치는 0밀리시버트(mSv)입니다.

더구나 핵폭탄이 투하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는 방사능 오염이 적어서 사람이 살 수 있지만, 핵발전소 사고가 난 '체르노빌' 근처에는 방사능 오염 때문에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사람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핵발전소 사고는 한순간의 폭발이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방사능 오염이 문제입니다. 피폭의 영향은 아주 오랫동안 느리게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연 방사능 물질은 농축이 안 되지만, 인공 방사능 물질은 먹이 사슬을 통해서 계속해서 축적되고, 최종 섭취자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쉽게 말해 핵폭탄은 순식간에 생명을 빼앗지만, 핵발전소 사고는 아주 천천히 더 많은 생명을 빼앗습니다. 따라서 둘 다 반생명적입니다. 46억 년 전 지구 탄생 이후, 최초의 원시 생명체가 출현하기까지 10~20억 년이 지나야 했습니다. 이유는 지구에 가득 찬 방사능이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방사능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소는 비윤리적이고, 깨끗하지도 싸지도 않고, 차별적이다

'핵발전소가 반생명적인 것은 사고가 났을 때가 아니냐, 사고가 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으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사고 없이 핵발전소를 폐쇄해도 핵폐기물은 남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핵발전소는 죽어서 핵폐기물을 남깁니다.' 그런데 인류는 지금까지 이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고 마구 핵발전소를 지어왔습니다. 핵분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플루토늄239는 단 1g만으로도 5만 명을 폐암에 걸리게 할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반감기는 무려 2만 4천 년이나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100만 년 정도 지나야 그 독성이 청산가리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핵발전소의 수명은 40년 안팎입니다. 핵폐기물은 최소 10만 년 동안이나 무서운 방사능을 내뿜습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볼 때 3,000세대 이상의 후손에게 피해를 줍니다. 약 40년 동안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위험한 물질을 수천 세대에 걸쳐서 남겨주는 것이 과연 바람직합니까? 너무나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범죄행위 아닙니까?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핵발전의 원료인 우라늄의 채굴과 가공 그리고 농축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핵발전은 싸지도 않습니다. 발전소의 건설과 폐쇄 그리고 핵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따지면 지극히 비경제적입니다. 햇빛발전이 더 경제적입니다. 더구나 핵발전은 인

간 차별을 구조적으로 내포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의 희생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대표적인 시스템입니다. 원료인 우라늄의 채굴에서부터 핵발전소의 유지·보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마다 방사선 피폭은 피할 수 없고, 이를 최전선에서 담당하며 희생을 강요당하는 이들은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핵발전소는 폐쇄적이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일본 국회에 의해 꾸려진 '후쿠시마 원자력사고 독립조사위원회'는 2012년 7월에 낸 보고서에서 "핵사고로부터 안전해야 할 국민의 권리"를 짓밟은 후쿠시마 사고의 근본 원인은 지진이나 쓰나미가 아니라 "원자력을 취급하는 기관과 개인들의 용서할 수 없는 무지와 교만"에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요컨대 후쿠시마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그 '무지와 교만'은 정부와 산업계, 언론, 학자들 사이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에 의해 조장·강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범죄적인 '유착관계'를 폭로한 생생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의 반핵활동가들이 만든 《후쿠시마의 거짓말》(2012)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일본계 미국인 기술자의 증언입니다. 이 기술자는 후쿠시마 제1원자로를 제작한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사의 직원으로서 여러 해 동안 후쿠시마 원전 상태를 점검하는 일에 종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원자로 내부의 증기건조기가 거꾸로 부착되어 있는 등 허다한 결함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안전상의 중대한 위험을 지적했을 때마다 회사 측이 침묵을 강요하고, 보고서 내용을 수정·조작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정부와 관계기관에 이 내용들을 알렸으나 일관되게 무시돼 왔다는 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국 회사든 일본 관계 당국이든 쉬쉬하며 사실을 은폐하고, 위험을 방치해 왔던 것입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일들은 핵발전소를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나라라면 어디든지 공통된 현상입니다. 비단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적·군사적 측면이 개입하고 있어서, 관련 정보는 늘 은폐되고 국민은 항상 거짓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후쿠시마의 경우 이러한 비밀주의의 궁극적인 결과는 폭발 사고였습니다.

핵발전은 이제는 이별해야 할 과학 기술이다

핵발전소는 핵분열의 원리를 이용한 인류의 발명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핵분열은 열에너지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이라는 위험물질도 함께 배출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인류가 발견 또는 발명한 기술이나 물질이 인류에게 꼭 유익했던 것은 아닙니다.

냉장고나 에어컨의 냉매, 스프레이 같은 분무제 등에 쓰였던 염화불화탄소(CFC), 일명 '프레온 가스'는 1928년에 미국 듀폰사가 발견한 이후 전 세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가스는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독성이 없고 불에 타지도 않아서 꿈의 물질로 불렸습니다.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공기보다도 가벼운 성질을 가진 프레온 가스는 계속 대기권으로 올라가 쌓이고, 거기서 오존층을 파괴합니다.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날아온 자외선을 막아 주는 역할을 했는데, 프레온 가스가 오존층에 구멍을 내자 사람의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백내장을 일으키고, 피부와 면역 체계에 이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레온 가스의 생산과 소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초반 전에는 가정마다 '곤로'라는 취사 기구가 있었습니다. '곤로'에는 하얀 심지가 있었는데, 그 심지는 바로 '석면'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석면은 폐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재는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이지만, 그 당시에는 가정마다 이 석면 심지에 불을 붙여 끼니마다 음식을 조리했습니다. 학교 과학실험에 사용되었던 알코올램프의 심지도 석면이었습니다. 또 살충제로 최고 인기를 누렸던 DDT도 너무 뛰어난 살충효과 때문에 인류에게 버림을 받은 발명품 중 하나입니다. 해충은 물론이고 약을 뿌리는 인간까지도 죽이는 독극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프레온 가스나, 석면 그리고 DDT처럼 그 위험을 몰랐을 때는 잘 사용하던 인류의 발명품들이 위험을 알고 나서는 다 퇴출당하였습니다. 이제 핵발전도 유익보다 해악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만 이별을 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핵발전소를 당장 멈춰야 하는가?

일본 사법부의 '히구치 히데아키'라는 한 판사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두 지역의 원전 가동을 멈추라는 판결을 하고, 『내가 원전을 멈춰 세운 이유』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전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을 분명히 밝히면서, 원전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이라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원전의 안전성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통제가 안 되는 위험시설인가를 명백히 알 수 있기에, 이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전문 지식이 없는 아마추어 눈에도 원전의 위험성이 분명하다는 상황만큼 무서운 일은 없다"고 하면서, 핵발전소 가동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호소합니다.

이 책이 새롭게 밝힌 사실은 후쿠시마 핵사고로 일본이 직면했던 '동일본 괴멸의 위기'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후쿠시마 핵사고를 소재로 한 영화 《후쿠시마 50》(2020)이나 넷플릭스 드라마 《더 데이스》(2023)가 말하듯이 최선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고, '결함'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기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원자로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격납 용기가 폭발한 것이 아닙니다. 격납 용기의 '외부 건물'이 폭발한 것입니다. 격납 용기 안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1,000개 분량의 '죽음의 재'가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폭발하면 '동일본 괴멸'이 현실이 됩니다. 2호기에서도 전원이 끊기자, 우라늄 연료가 녹아 내리고, 대량의 수증기와 수소가 발생했습니다. 점점 압력이 높아져, 격납 용기의 대폭발을 막기 위해서는 벨브를 열어 가스를 배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는 끊겼고,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데 높은 방사능 때문에 접근이 불가했습니다. 그런데 대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2호기에 있어서는 안 될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압력이 새어 나왔던 것입니다. 만약 격납 용기가 결함 없이 견고하게 만들어졌더라면 도쿄를 포함한 반경 250km의 지역에서 4천만 명의 시민이 피폭되는 피해를 당하였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요행의 기적은 4호기에서도 있었습니다.

핵발전소는 핵폭탄과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사고가 나면 핵폭탄 투하와 맞먹는 큰 피해를 봅니다. 아니 핵폭탄보다 피해 규모가 큽니다. 방사능 피폭 범위도 넓고, 그 영향은 당대를 넘어 수천 세대에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핵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핵발전소를 만들 수도 없고, 완벽히 안전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히구치 히데아키' 판사는 원전의 위험을 '완벽한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2011년 3월 11일에 일본이 발동한 '원자력 긴급 사태 선언'은 지금도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의 위기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23년 8월 24일에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저장하고 있던 핵폐수를 해양으로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2만 3351톤을 방류했고, 올해 2월 하순부터 7800톤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물은 "ALPS라는 기계로 삼중 수소 외의 핵종을 제거한 후, 나머지 삼중 수소도 바닷물로 희석해서 바다에 흘려보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그러므로 바다에 방류하는 물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히구치 히데아키 판사는 이에 대해서 '진정한 과학'이라면 다음 물음에 답하라고 합니다.

① 그 물은 지하로 녹아내린 핵연료에 직접 닿았던 물인데, 과연 삼중 수소만 문제라고 할 수 있는가?
② 안전하다면 왜 바닷물과 섞어 희석해야 하는가?
③ 이런 해양 방출은 대체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방사능은 무색(無色), 무미(無味), 무취(無臭)하지만, 독성이 있습니다. 그 독성은 먹이 사슬을 통해 축적됩니다. 그것을 먹으면 우리도 피폭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방사능은 없습니다. 방사능 피폭량과 암 발생은 비례합니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당장 후쿠시마 핵 폐수 해양투기를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으로 탈핵 운동에 나서자!

앞서 후쿠시마 핵사고를 통해 확인했듯이, 인간은 완전한 핵발전소를 만들 수도 없고, 완벽히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 아니기에 불완전하고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 인간이 그토록 완벽히 위험한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자기가 신이라도 된 듯한 교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언자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겔 28:2)

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이제] 생명을 택하여라."(신 30:19) 이제껏 살펴보았듯이 핵은 사망이요 저주입니다. 이제 핵이 유익보다 해악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았으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 탈핵 운동에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에 생명과 복을 택하는 길이요, 하나님이 명하신 신앙인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봄에 탈핵 운동으로 죽음의 세상에 생명을 심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 이 설교문은 서울제일교회 정원진 목사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예배 자료 3

현안 이야기

(*이 자료는 탈핵신문 2024년 1월호에 정리된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도쿄전력은 작년 8월 24일부터 지금까지 3차에 걸쳐 2만 3351톤의 후쿠시마 오염수를 투기했다. 도쿄전력은 올해 2월 하순 오염수 7800톤의 해양투기를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2023년 12월 21일 기준 오염수가 탱크에 132만 5712톤이 저장돼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용인했고, 오염수 관련 시민들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하면서 엉터리 카드뉴스를 대대적으로 배포했다.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투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전국적으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지역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과 전국공동행동, 개별 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4만 명 넘는 원고를 모집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2024년,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다 더 다각도에서 고민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절차 진행 중

한국수력원자력은 지금까지 부산의 고리핵발전소 2·3·4호기와 영광군에 있는 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신청과 관련 자료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고리 2·3·4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 유일하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과 공청회를 마쳤으며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심사를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올해 4월경 원안위로부터 수명연장 허가를 취득할 계획을 세웠다.
한빛 1·2호기는 한수원이 수명연장 관련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을 위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에 공람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광군·고창군·함평군·부안군은 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며 공람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어떻게 저지할지 지혜가 필요하다.

3. 한울 1·2호기와 월성 2·3·4호기 수명연장 신청 예상

한수원은 올해 초 울진에 있는 한울핵발전소 1·2호기와 월성핵발전소 2·3·4호기 수명연장을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이미 작년 10월에 한울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한울 1호기는 2027년 12월, 한울 2호기는 '28년 12월에

40년의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월성 2·3·4호기는 설계수명이 각각 30년이며 '26년 11월, '27년 12월, '29년 2월에 각각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방사능 누출과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결함 등으로 수명연장 신청이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지만, 한수원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이들 3개 핵발전소도 수명연장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는 사용후핵연료 수조 균열과 방사성물질 누설, 비 내진 앵커볼트 시공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4. 울진 9~10호기(신한울 3·4호기) 건설 추진

윤석열 정부는 울진의 9~10번째 핵발전소에 해당하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건설허가를 위한 서류를 원안위에 제출했고, 현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가 건설 허가 심사를 완료했고, 원안위의 검토와 승인을 앞두고 있다. 원안위가 건설을 승인하면 한수원은 신한울 핵발전소 3·4호기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이미 한수원은 공사를 위한 입찰을 진행해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신한울 3·4호기 주설비 공사를 수주했다.

5.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통과냐, 폐기냐

여야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 10여 건의 쟁점 법안을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협의 중이다.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도 있으나, 정부와 여당이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법안이라 막판 통과 가능성도 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안에 보관할 수 있게 하는 '부니 내 저장'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지역과 시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여당 성향의 기초자치단체 등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소관 상임위인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그동안 11차례에 걸쳐 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4일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2+2 협의체'를 구성했고, 2+2 협의체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한다.

6.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의 주요 내용을 담은 실무안을 1월 중에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11차 전기본은 원래 2024년 말까지 수립하면 된다. 그러나 산업부는 일정을 앞당겨 작년부터 11차 전기본을 준비했고, 올해 상반기 내에 확정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원전 진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11차 전기본은 2024~2038년까지의 발전소 건설계획이 담긴다.
탈핵 진영은 정부가 11차 전기본을 통해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추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은 신한울 3·4호기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지역과 탈핵진영 대응이 미

진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1차 전기본에 시민사회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7. SMR 사업 및 실증로 건설 계획

올해 I-SMR R&D 예산이 전년 대비 294억원 증액된 333억원이 책정됐다. 전년 예산 39억원 대비 759% 증가한 규모다. 원전 핵심소재부품장비 국산화 R&D 예산은 64억원,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안전성확보 핵심기술개발 예산은 243억원 배정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SMR 건설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시 감포읍에 짓고 있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안에 신형 가압경수로이자 다목적 소형연구로인 ARA(소형모듈원전 연구용 실증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 '다목적 소형원자로'는 70MW급이며, 핵연료 농축도는 19.75%다. 일반 발전용 대형 원자로에 쓰는 우라늄 농축도 3~5%임에 비해 우라늄 농축도가 매우 높다.

8. 갑상선암 공동소송과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저선량 피폭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만 9년째 저선량 피폭과 암 발병 인과관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핵발전소 인근지역에 살면서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과 그 가족 '김부진 외 2854명'은 원고로 참여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원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저선량 피폭 문제는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 주민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지속적으로 저선량 방사선에 피폭될 위험에 처해 있다. 한국 정부는 기준치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저선량 피폭이라도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사회적으로 저선량 피폭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이 의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9. 동남권에 언제든 지진 가능성 있는 활성단층 16개 존재

행정안전부가 2017년부터 5년 동안 조사한 동남권 단층 조사 결과를 작년 1월에 공개했다. 조사단은 동남권에서는 유계, 반곡, 벽계, 곡강, 구만, 왕산, 천군, 말방, 석계, 차일, 읍천, 수렴, 월산, 인보, 상남, 장대단층 등 16곳의 활성단층 분절을 찾았다. 이 가운데 규모 6.5 이상의 강진이 일어날 수 있는 설계고려단층도 5곳이 확인되었다.
설계고려단층 포함한 활성단층 16곳 중 7곳이 핵발전소 반경 32km 안에 있고, 읍천단층은 월성핵발전소와 불과 1.8km 거리에 있다. 지진 우려와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더 적극적인 이슈로 만들 필요가 있다. 한 예로 수명연장 시 설계고려단층을 고려해 내진을 강화하는 등의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배 자료 4

〈성명서〉

핵 없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사람아, 두로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 속으로 신이라도 된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겔 28:2)

2011년 우리는 후쿠시마 핵사고를 경험했습니다. 지진해일이 불러온 참상을 극복하고 희망을 꿈꾸었어야 할 후쿠시마는 핵사고로 인해 더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간 일본 정부는 막대한 복구비용과 난망한 해결방식 앞에서 그저 핵사고를 덮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는 아무 잘못없는 시민들을 위험으로 빠뜨리는 방식이었고, 지구 전체에 재난을 확산하는 일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선택을 통해 더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핵 문제는 피폭자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신앙선언〉은 핵발전과 핵무기의 문제를 '피폭자'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촉구합니다. 피해를 당한 이,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들을 통해 핵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핵발전소는 핵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고 시 겪게 되는 참혹한 문제 이전에도 핵발전소는 수많은 핵종이 포함된 핵폐기물을 만들어냅니다. 가동 중 발생하는 액체, 기체 방사성 물질들 역시 핵폐기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는 이를 대기와 바다에 방출합니다. 방사성 물질들은 결국 인간뿐 아니라 지구 생태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는 이러한 행태의 연장선에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껏 방치하고 버려왔던 핵폐기물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피폭자를 만들고,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핵폐기물을 투기해왔고, 앞으로도 책임질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에 침묵할 수 없고, 해서도 안됩니다.

핵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핵발전이 경제적이라거나 탄소배출이 없어 깨끗하다는 말, 방사성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말은 피폭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용납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피폭자의 눈으로 바라본 핵은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피폭으로 인한 피해자들을 핵에서 떼어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핵사고를 덮으려는 이들은 언제나 피해자들의 존재를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피해를 직면하고 피해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로 인해 죽어간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고통 받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일한 노동자들과 사고를 덮기 위해 복귀시킨 피난민들이 당하는 피폭의 문제역시 심각합니다. 더불어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해 피해를 입는 어민들이 존재하고, 피해를 입을 바다 생태계의 수많은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는 목소리는 은폐되거나 외면당합니다. 이는 핵발전소 주변의 주민들이 겪는 일상적 폭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신앙은 이러한 폭력과 그로인해 강요된 침묵 속에서 눈물 흘리는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체

제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선 동시에 이집트의 폭력적 체제를 심판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폭력과 압제에 침묵할 때 우리 역시 폭력의 동조자이며, 억압의 구조를 지탱하는 이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폭력과 억압의 체제에 반대하고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요. 신이 아닙니다!

핵분열이 발생시킨 막대한 에너지를 발견한 인류는 스스로가 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핵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거짓말로 핵발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는 인간의 사소한 실수와 자연재해로 인해 폭발하며 인류가 핵에너지를 통제할 힘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핵발전소의 안전을 장담하던 수많은 공학자들이 존재했지만 그들은 핵사고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핵폐기물은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독성을 가진 방사성 물질인 핵폐기물은 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못할 장소에 수만년을 격리되어야 합니다. 독성을 해결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결하지 못할 핵폐기물이 지금도 핵발전으로 인해 계속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투기하고 있는 핵오염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과학기술은 그 속에 포함된 수많은 핵종을 다 파악하지도 못했습니다. 파악도 하지 못한 핵종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장담하고, 이를 공인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교만한 인류는 자신들의 무지가 수많은 이들을 위험으로 몰고 가고 있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스스로가 선 자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에스겔 28:2)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피폭자의 자리에서 바라본 핵은 자체로 억압과 폭력의 체제입니다. 여전히 핵발전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한국의 핵산업계와 그들에 동조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인들 그리고 지금의 정권은 한통속이 되어 억압과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해결하지 못할 핵사고를 덮기 위해 창조세계를 향한 폭력을 자행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억압과 폭력에 저항하는 것, 그리고 교만한 이들을 향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명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무임을 믿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13주년을 맞으며 우리는 더 이상 핵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거나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인류와 창조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핵을 벗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평화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태양과 바람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핵 없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2024년 3월 10일

핵 없는 세상을 소망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일동

예배자료 5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 그리스도인 신앙선언

한국기독교는 나라와 민족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에 대한 신앙적 입장을 고백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전통을 가지고 있다. 1919년에는 3.1운동에 참여하여 민족의 해방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생명질서를 대망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면서 고난당하는 민중과 연대하였고, 1980년대에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신앙적 과제임을 고백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신앙고백의 전통 위에서 다시금 우리 시대의 징조를 읽는다.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조선의 자주독립을 만방에 선언했던 것처럼,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나아가 전 세계에서 '핵으로부터의 독립'을 이루는 것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적 과제라 보고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는 바이다.

핵은 자연을 정복하려는 과학기술공학체제(Technocracy)와 대량살생의 군사무기 및 무한성장을 통하여 지정학적 패권을 차지하려는 경제체제의 융합으로서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위협하는 권력체제이다. 이러한 핵은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골 2:15, 엡 6:12)의 절대 권능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사 9:6, 욥 25:2, 딤전 6:15)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선악과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창 1:1) 사랑하신(요 3:16) 모든 지구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사망의 권세"(시 49:15)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핵과 기독교 신앙이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선언한다.

피폭자의 자리에 서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피폭자'(被爆者)의 자리에 서서 핵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려 한다.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 피해자의 10분의 1은 한국인이었다. 그들은 일본 식민주의에 의해 강제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원폭박물관에는 한국인 희생자에 대한 기록이 단 한 줄도 없다.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오늘도 사람들의 망각과 무관심 속에 고통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는 또한 지난 30여 년간 이 땅 위에 지어진 수많은 핵발전소로부터 많은 피폭을 경험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이 땅 위에 핵무기가 배치되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 핵에 대해 우리의 신앙적 입장을 밝히는 삶의 자리이고 상황이다. 우리는 핵보유국의 눈이 아니라 피폭자의 눈으로 이 문제를 보려 한다. 과학기술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생명의 관점에서 보려 한다. 그리고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세대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자리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려 한다. 나아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을 포괄하는 전 우주적 생명공동체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핵은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먼저 핵무기(nuclear weapons)는 군사용이고 핵발전(nuclear power plant)은 평화용이라는 거짓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원자력은 처음부터 군사적 이용, 즉 원자탄개발을 위해 시작되었다. 원자로는 보통 발전(發電)을 연상시키지만, 원자로란 본래 우라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라늄238을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239로 변화시키기 위해 고안된 장치이다. 원자핵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발산시키는 것이 핵무기이고, 그것을 천천히 발산시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것이 핵발전이다. 태생적으로 핵무기와 핵발전의 뿌리는 같다. 실로 수많은 나라들이 민간 핵발전의 덮개 아래서 핵무기를 개발했다. 이렇듯 핵발전은 핵무기에 대한 욕망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구호에 동의하지 않는다. 핵발전과 핵무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핵은 결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더욱이 핵발전이 많아지면 평화를 더욱 위협한다. 핵발전소에 대한 군사적 혹은 테러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현대 비대칭 전쟁에서 공격목표 1번 중 하나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남한의 핵발전소들은 북한 장사정포의 전략적 타격지에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핵은 원료를 생산하는 지역의 평화도 위협한다.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우라늄 부족은 수 십 년 전부터 분쟁의 씨앗이 되어 왔다. 설상가상으로 우라늄은 오래전부터 투기의 대상물이어서, 그것을 둘러싼 전쟁은 석유를 둘러싼 전쟁처럼 세계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핵은, 그것이 무기든 발전이든, 결코 평화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와 핵발전의 완전한 종결을 요구한다. 핵우산을 통한 방어든, 핵 공격을 통한 방어든, 핵을 통한 안보는 진정한 안보가 아니다. 각국 정부는 더 이상의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수명이 다한 핵발전소를 완전 폐기해야 한다. 그리고 핵에너지 체제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고 거기에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

핵발전은 지구온난화 극복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세계 핵산업은 1979년 미국 스리마일섬 핵발전소 폭발과 1986년 체르노빌 핵발전소 대참사 이후 급속히 쇠퇴하는 듯 했지만, 지구온난화를 빌미로 기사회생했다. 하지만 우리는 핵에너지가 기후변화의 대안 에너지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한다. 핵에너지는 온실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저탄소 청정에너지가 결코 아니다. 설사 발전부문에 국한해서 핵발전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핵발전의 전 과정에서, 특히 우라늄의 채굴과 가공 및 농축과정에서 엄청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발전부문에 있어서도 핵발전은 낭비가 심한, 매우 비효율적인 에너지다. 물리적으로 핵발전 과정에서는 핵분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단 3분의 1만이 전력으로 전환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섭씨 30도가 넘은 온배수(溫排水) 형태로 바다에 버려져 생태계를 오염시킨다. 설상가상으로 핵발전은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극도로 융통성이 떨어지는 에너지다. 핵발전은 한번 가동하면 전력수요에 맞추어 출력을 조정하지 못한다. 낮이나 밤이나, 여름이나 겨울이나, 1년 내내 동일한 출력으로, 그것도 언제나 최고의 소비 시점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해야만 한다. 그래서 핵발전에는 언제나 '남는 전기'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심야 전기' 사용을 권장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국 한 사회의 에너지 소비 전체를 과도하게 만들어 오히려 지구온난화에 기여한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모든 핵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은 전 세계 총 에너지 수요의 고작 2%만 충당할 뿐이다. 이와 달리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는 오늘날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약 13%를 충당하고 있다. 결국 화려한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핵은 틈새기술에 불과하며 기후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적 에너지가 아닌 것이다. 수많은 연구와 사례들은 이미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 인류의 에너지 공급을 100% 충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가 화석연료와 핵에너지로부터 탈피하여 재생가능 자연에너지의 시대를 여는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햇빛과 바람과 지열과 파도 등의 자연에너지

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임을 확신한다. 핵발전은 오히려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의 전환을 방해하고, 전력낭비를 부추기며, 미래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투자를 억제한다. 핵에너지와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는 양립할 수 없다. 핵에너지는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로 가는 징검다리 에너지가 아니다. 핵무기가 세계평화에 대한 틀린 해법이었듯이, 핵발전도 지구온난화에 대한 잘못된 해답이다.

핵폐기물로 인한 지구오염과 생명파괴는 창조질서의 파괴이고 신성모독의 죄다

인류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대책도 세우지 않고 핵발전소를 지어왔다. 하지만 단 1그램의 핵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되지 않는다. 이른바 폐연료봉의 재처리는 더 많은 핵폐기물을 만들어낼 뿐이다. 인류는 아직도 핵폐기물의 최종보관을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 핵폐기물은 100만년 동안이나 방사선을 내뿜지만 그것을 생태계와 격리시키는 인간의 드럼용기 수명은 고작 40년뿐이다.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까지 고준위폐기물을 안전하게 최종 보관할 장소는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발전소 수조에는 폐연료봉이 '임시로' 보관되어 있다. 우리는 이 폐연료봉들을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지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또 한 차례 핵폐기장 문제를 놓고 한국사회가 깊은 분열과 진통을 겪을 것이다. 결국 우리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핵폐기물을 떠넘기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대손손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이며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세계를 오염시키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에 대한 모독이다.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명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명의 축복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에 기초한 핵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핵발전소가 생산한 전력을 맘껏 사용하는 호사를 누렸다. 실로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가 9기던 1991년에 2,312kWh이던 1인당 전력소비량은 2005년에 7,403kWh로 3배나 증가해 이미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를 앞섰다. 2010년에 우리나라는 그 4배나 되는 9,493kWh의 전력을 소비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국민은 '핵생산자', '핵소비자', 나아가 '핵가해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잔치'는 끝났다. 이제부터 우리는 핵발전소 폐쇄라는, 예고된 문제와 직면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핵발전을 통한 전기의 풍요라는 '단맛'을 봤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핵발전소 폐쇄와 핵폐기물의 처리라는 '쓴맛'을 보아야 한다. 1950년대 시작된 인류의 핵발전은 이제 공통적으로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폐기문제를 논의해야 하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 한국은 1978년 부산 기장에 고리발전소를 지으면서 매 18개월마다 1기씩의 속도로 지금까지 총 25기의 핵발전소를 지어왔다. 이제 우리는 매 18개월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1기씩의 핵발전소를 철거해나가야 한다. 핵발전소 1기당 철거해체 비용은 무려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짓 풍요의 기초를 냉철히 돌아보아야 한다. 산업화를 위한 에너지의 과용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무한 경제성장과 이윤극대화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체제는 에너지 과소비와 소비주의로 귀결됐다. 이제 우리는 끝없는 에너지 탐욕과 소비주의에 기초한 핵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2011년 3월의 후쿠시마 대재앙은 인류가 핵으로부터 시급히 문명사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는, 인류에 대한 커다란 경종이었다. 당장의 소비지향적 삶을 위해 사회와 자연에 해악을 끼치는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다. 이와 달리 절제와 인내로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를 촉진하려는 노력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이다.(마태 7:13-14) 우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를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전력사용량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핵발전에 몰두해왔다. 2030년까지 약 40조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추가 핵발전소 건설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0년에는 핵발전소를 전략 수출산업으로 지정했고, 2011년 후쿠시마 대재앙을 계기로 앞으로 20년 동안 전 세계에 80기의 핵발전소를 수출해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대 핵발전 선진국으로 발돋움한다는 구상을 세운바 있었다. 아울러 2014년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서 재처리연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적 권리를 확보함으로서 핵 재처리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 하지만 핵발전은 결코 녹색발전이 아니며 핵안보는 생명안보가 아님을 우리는 선언한다. 핵무기는 국가나 세계의 안보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위협한다. 진정한 안보는 핵보유국들의 안전이 아니라 전 지구생명공동체의 안전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요한 14:27)가 될 것이다. 진정한 안보는 핵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시편 121:1-2) 핵발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 핵발전 사고는 매일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매일 일어나고 있다. 핵발전은 실수 없는 인간을 요구하지만,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다. 핵은 오히려 사회와 국가 그리고 지구 전체의 생명안보를 위협하는 자멸의 길이다. 우리는 한국의 에너지 정책이 핵발전에서 벗어나 재생가능 자연에너지에 기초한 진정한 녹색정책으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

세계 최대의 핵 밀집 지역인 동북아시아에서 생명의 연대가 시급하다

2017년 현재 한국의 24기를 비롯해 일본의 43기, 중국의 36기의 핵발전소가 운영 중이다. 전세계 449기의 핵발전소가 운영중임을 감안했을 때, 세계 발전소의 23%가량, 104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는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지뢰밭'이다. 만약 앞으로 다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확률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다. 중국과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국이고, 일본은 핵무기 비보유국이면서도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00년 당시 약 30톤이나 되는 막대한 잉여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약 1,000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한 복판에 서서 핵보유국들 기득권의 안보가 아니라 인간과 생명의 안보가 시급함을 역설하고자 한다. 이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생명의 연대를 이루는 일은 세계평화에 핵심적인 의제다.

핵과 기독교 신앙은 양립할 수 없다

핵무기와 핵발전은 권력과 폭력의 상징이다. 그것은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욕망의 출발점이자 종착역이다. 그것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선악과이다. 절대 권능에 대한 금단의 유혹이다. 이러한 핵으로 인간은 정복과 탐욕의 체제를 만들었으며, 그 체제는 지구생명공동체 전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전쟁과 피폭과 오염의 문제를 낳았다. 이러한 체제는 기독교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 과학자들은 CP-1이라는 이름의 세계 최초의 인공 원자로가 미국 시카고대학 운동장에 지어지면서 인간이 가히 조물주의 영역에 들

어서게 되었다고 자부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네가 신이라고 하고 네가 바다 한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네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에스겔 28:2).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죄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유형의 교만이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이러한 혼동 속에서 죄인은 자신을 거짓 신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핵과 기독교 신앙이 결코 양립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그리스도인이면서 동시에 핵무기를 지지하거나 핵발전을 옹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둘은 모순어법이기 때문이다. 핵은 하나님 없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골 2:15, 엡 6:12)의 절대 권능에 대한 욕망이고, 과학과 기술의 이름으로 온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사 9:6, 욥 25:2, 딤전 6:15)을 거부하고자 하는 현대판 선악과 사건이며, 또한 하나님이 지으시고(창 1:1) 사랑하신(요 3:16) 모든 지구 생명체를 멸절시킬 수 있는 “사망의 권세”(시 49:15)이다. 핵무기는 욥기 41:1-34에 나오는 ‘레비아탄’을 연상시킨다. 지구 곳곳에 시한폭탄처럼 박힌 핵발전소들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마가 13:14)을 연상시킨다. 세계교회협의회(WCC) 제6차 총회의 결의대로, 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며, 생명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 세상을 힘을 통해 다스리고자 하는 집권자들 앞에서 섬김과 나눔과 사랑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죽음에 대한 사랑(necrophilia)에 빠져들어 정의와 평화의 열매를 맺으시는 생명의 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 행동강령

지금 우리는 ‘핵무기와 핵에너지’로 말미암은 총체적 생명의 위기 앞에 서 있다. 이제 우리는 핵 위주의 에너지 과다소비 사회로 갈 것인지, 아니면 재생가능 자연에너지 중심의 생태적인 사회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다. 40년간의 광야생활 후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이제 생명을 택하여라”(신 30:19)고 명령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피폭자들의 고통과 죽음을 나누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평화의 길이 되어주셨다.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탄식하시며(롬 8:22) 모든 생명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 일하신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에 서서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이다.

1. 우리는 핵이 주는 환상과 유혹, 그리고 핵에 대한 우리의 탐욕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영적 각성이 이 시대의 신앙적 과제임을 인식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핵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피해자의 아픔을 나누며, 피폭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앞장선다.

2. 우리는 핵에 대한 정보와 의사결정이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핵관련 정보의 숨김없는 공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우리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가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결정을 통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우리는 한국정부가 핵발전을 중심으로 한 잘못된 에너지정책을 포기하고 핵발전소 부품을 수출하는 핵무역에서도 탈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는 핵산업과 핵에너지 사용산업에 국민의 세금을 근거로 한

국고지원과,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원자력 홍보기관인 한국원자력문화재단에 국민의 전기요금 3.7%를 일괄 배정하는 것을 반대한다.

4. 우리는 각 정당들이 탈핵 정책을 입안하고 채택하도록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한다. 또한 우리는 한국의 기업들이 핵산업과 핵에너지 사용산업에 대한 투자를 철회하고 재생가능 자연에너지 산업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할 것을 적극 권고하도록 하는 윤리적이고 사회책임적인 투자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5.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가 핵에너지와 결별하고 재생가능 자연에너지를 통한 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탈핵 에너지 전환운동'을 앞장서서 전개한다.

6.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핵 밀집 지역임을 인식하고 '핵 없는 세상'을 이루기 위한 동북아시아 그리스도인 생명연대를 적극 추진한다.

7. 우리는 생명의 지혜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교 . 문화 . 사상을 수렴하고 융합하면서 새로운 생명문화의 창조에 나선다. 특히 핵 없는 세상을 위해 이웃종교와의 생명연대를 적극 모색한다.

8. 우리는 과학 없는 종교가 미신에 빠질 수 있듯이, 종교 없는 과학이 흉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기술만능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과학윤리를 비판하면서 핵문제에 대한 종교와 과학간 대화를 제안하고 실행한다.

2012년 3월 1일
2017년 4월 24일(개정)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YWCA연합회 / 기독교대한감리회 환경선교위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사회봉사부 / 한국기독교장로회 생태공동체운동본부 / 예수살기 / 아시아태평양생명학연구원 /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 고기교회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 감리교 농촌목회자협의회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기독자교수협회 / 기장생명선교연대 / 기장햇빛발전협동조합 / 생명평화마당 / 생명평화기독연대 / 성공회 생명과환경위원회 /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 정의평화기독인연대 / 하나누리 / 한국기독교생명농업포럼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 / 한국여신학자협의회 / 가재울녹색교회 / 강남향린교회 / 계동교회 / 새민족교회 / 지평교회 / 청지기교회 / 평화마을교회 / 함께여는교회 / 향린교회 / 홍덕새누리교회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성문밖교회